

10. 금식과 시험(2011. 9. 4)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신 후에 광야에 나가셔서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사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사건에 담겨 있는 복음적 의미를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참 구주 예수님을 더 깊게 사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설교 CD를 워하시는 분은 626-374-9480으로 연락하시면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4:1~11] 그 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2 사십 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리신지라 3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4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5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6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7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8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9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10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11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아와서 수종드니라.

애청자들께서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만,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신 후에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마태복음을 읽으면 예수께서 마치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목적으로 광야에 나가신 것 같은 인상을 받습니다. “그 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마4:1)라고 했거든요. 그러나 마가와 누가복음을 읽으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목적으로 광야에 나가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로 예수께서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며 하나님과 특별한 의논을 위하여 나가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사십 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막1:12,13) 누가는 4:1,2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 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사십 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들은 예수께서 광야에 나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당신께서 하실 일을 위하여 하나님과 의논하는 기간을 보내시고 심히 줄이셨을 때에 마귀가 공격한 것일 뿐입니다. 시험을 받을 목적으로 나가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왜 광야로 나가셨을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을 지내시며 금식하셨습니다. 이것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간 광야 생활한 것의 축소판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이스라엘의 표상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참 이스라엘이 됩니다.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 된 것이 참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고 바울은 로마서 2장 28,29에서 말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

와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나아온 것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애굽인 죄악 세상에서 나아와서 홍해, 곧 침례를 받아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표상합니다. 스테반은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 이스라엘이 통과한 광야를 광야교회라고 말했습니다. 그 광야는 교회를 표상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광야에 나가셔서 40일 금식하시면서 구원의 사업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시는 그 기간은 결국 예수님이 세우실 교회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 예수님이 애굽에 피난했다가 돌아온 사실을 마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낸 사건의 실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호세아 11:1에 있는 말씀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고 한 말이 바로 예수께서 애굽에 피난 다녀올 사실에 대한 예언이라고 마태 2:15에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으신 후에 광야에서 40일을 보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 후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사실의 의미를 구원사업에 연결시키신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관련이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을 뜻합니다. 바울을 고전 10:1,2에서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2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것이 바로 침례를 받는 것을 표상한 사실을 잘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지요. 그들은 침례를 상징하는 홍해를 건너 후에 광야에 나왔습니다. 광야는 교회를 표상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고 교인이 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침례를 표상하는 홍해를 건너는 것이 죽고 장사 되고 부활하는 것을 나타내는 예식이지 않습니다. 예수님 침례 받으신 사실을 말씀드릴 때 자세히 말씀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신 것은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하여 죽고 장사되고 부활할 것을 나타내는 것임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 사실을 표상하는 침례를 받으신 것은 옛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 것과 같은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광야에 나가셔서 40일을 지냈습니다. 옛 이스라엘이 40년간 광야 생활 한 것을 축소판으로 실행하신 것이지요.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애굽 같은 죄의 세상에서 침례로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이스라엘로 생활하게 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 광야는 거친 인간의 마음을 표상하기도 합니다. 이사야는 성령께서 오셔서 광야를 아름다운 밭이 되게 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사 32:15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삼림으로 여기게 되리라.” 이 말씀은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때 일어나는 변화를 예언한 것이지요.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은 삼림이 될 것이라는 말은 인간의 마음 밭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에서 사람들의 상태를 밭으로 비유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광야는 인간의 마음을 표상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광야같이 메마르고 황량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인간의 마음을 아름다운 밭으로 삼림으로 바꿀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 일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부와 성령과 성자께서 함께 이 일을 하실 것을 보여줍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셨고 성부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선포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광야에 오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광야와 같은 죄인들, 사망이 되어서 황폐한 사람들을 되살려서 아름다운 밭과 삼림같이 싱싱하고 풍성하게 하실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예수께서는 광야 같은 환경에서 고난을 겪을 것입니다. 광야는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창조주 여호와를 만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바울

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곧바로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예수님과 함께 지냈습니다.(갈1:17) 바울이 얼마동안 아라비아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어쩌면 예수께서 광야에 계시던 기간만큼 있었을 수도 있지요. 광야는 인간 사회와 격리되어 있어서 예수님과 함께 자기를 성찰하면서 영적으로 충실하게 훈련하기에 좋은 곳인 듯합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금식하셨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계명을 받을 때에 40일 동안 식음을 전폐한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또 엘리야가 이세벨의 낫을 피하여 호렙에 갈 동안 40일 동안 식음을 폐한 사실도 압니다.(왕상19:8) 예수님은 이런 역사적 사실들을 잘 아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40일을 금식하시며 우리들의 구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특별히 준비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어서 성령의 역사로 마음이 아름다운 발과 삼림 같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 주님 예수님의 고난의 보람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하여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광야에 계시는 동안 들짐승들과 함께 있었다고 마가는 기록합니다. 1:13에 “광야에서 사십 일을 계시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고 말했습니다. 유대 광야의 들짐승들은 사나운 짐승들입니다. 예수께서 그것들과 함께 지내셨다는 것은 사나운 짐승들이 예수님을 전혀 해치지 않았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어쩌면 그것들이 그들의 창조주를 알아봤을지도 모르지요. 사랑의 예수님을 해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성 프랜시스도 짐승들과 잘 지냈다는 이야기가 전해오지 않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했습니다.(요일4:18) 우리도 예수님만큼 사랑의 사람이 되면 들짐승도 감복할지도 모르지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사람도 감복시키지 못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으니 우리 주 예수님께 황송하기 그지없습니다. 애청자들께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여 주리신 때에 시험하는 자가 나타났습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나타날 때에 어떤 모습을 나타냈을까요? 마귀의 형상이 어떤지 우리는 모릅니다. 사람들은 마귀를 나타내기 위하여 뽀족하게 뿔난 머리에 시커먼 몸 색깔에 박쥐날개를 단 형상을 잘 그리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마귀 루시퍼는 사람들이 자신을 그렇게 나타내는 것을 은근히 좋아할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면 광명한 천사의 모습을 나타내는 자기에게 완전히 속을 것이기 때문이지요. 마귀는 사람들을 속이는데 전문가 아닙니까. 그는 원래 새벽별이라는 이름을 가진 천사였습니다. 루시퍼라는 말은 히브리어 헬렐을 라틴어로 번역한 말인데, 헬렐은 빛을 가진 자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 성경은 계명성이라고 번역했지요.(사14:12) 계명성은 새벽별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루시퍼는 자신을 새벽별처럼 찬란하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의 원래 모습이니깐요.

아마도 광야의 예수님께 마귀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고 기록했지요.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고후11:14). 그렇습니다. 마귀 사단은 자기를 나타낼 때 광명한 천사로 나타납니다. 광야의 예수님께 마귀는 이렇게 나타났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처음 그의 모습을 봤을 때 루시퍼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요. 사람이 되신 분이니까요. 그러나 루시퍼가 예수님께 시험의 말을 시작했을 때 금방 그의 정체를 알았을 것입니다. 시험 내용을 성경말씀에서 찾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4:3~11]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4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5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6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7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8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9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10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11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아와서 수종드니라.

이 내용은 애청자들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 문제이지요. 첫 번째로 마귀루시퍼는 주려서 먹을 것을 생각했을 예수님께 먹는 문제를 내어놓습니다. 그런데 돌을 내어놓습니다. 돌은 음식이 아닙니다. 음식 아닌 것을 음식을 만들어서 먹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돌, 먹을 수 없는 그것을 먹을 수 있는 떡이 되게 하면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가정법으로 묻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하고 시험을 시작하였지요.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 말을 받아들이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의심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게 되지요. 40일 전에 침례를 받을 때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선언에 의심을 붙여넣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히 기록한 말씀으로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마4:4) 두 번째 시험은 명예에 대한 시험입니다.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명하여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라고 성경말씀 시91:11,12의 말씀을 제시합니다. 마귀가 감히 예수님께 성경말씀으로 시험했으니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광명한 천사처럼 의의 일꾼처럼 나타나서 성경말씀을 제시하며 우리들을 시험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거기에 또 기록하였으되 라는 말씀으로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오직 성경말씀으로만 대답하십니다. 성경말씀은 우리의 믿음의 유일하고 안전한 초석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으로 시험할 때에 우리는 그 말을 성경으로 검증해야 합니다. 성경을 인용한다고 다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마귀의 경우가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듣는 말씀을 성경으로 검증해야 합니다. 지금 저의 강론을 들으시는 애청자들께서 제가 증거하는 말이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과 일치하는지 베뢰아 교인들처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으로 시험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또 기록하였으되”라고 하여 올바른 성경구절을 사용하여 대답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요즘은 속이는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예수님은 말세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다 자기들이 참 선지자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믿고 그렇게 활동할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말씀으로 시험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말씀과 하나라도 일치하지 않으면 그것은 바른 증거가 아닙니다. 마귀는 다시 세 번째 시험을 합니다. 이것은 신앙과 권력에 관계된 것입니다. 높은 산에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마귀 자기에게 절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예수께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귀는 이 모든 것은 자기에게 넘겨준 것이기 때문에 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누가복음 4:5,6에 그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이 지구를 누가 마귀에게 넘겨주었습니까? 당연히 아담이지요. 태초에 아담이 마귀의 제안대로 선악과를 먹었을 때 이 지구의 통치권은 사단에게 넘어갔습니다. 그

러나 원래는 예수님의 것이지요. 그분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단호히 오직 주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고 기록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단은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수종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하나님시며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셨을지라도 자신의 신성의 권능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오직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말씀으로 바른 믿음을 지키고 유혹자를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익숙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식으로도 그렇고 생활로도 그렇습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은 많은데 말씀대로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하나님께 욕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말씀이 생활이 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마귀의 시험은 여러 가지 의미를 찾을 수 있지만 하나를 말한다면 이 세 가지 시험은 경제문제와 능력문제와 종교문제를 해결해야 세상을 구원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은근히 제시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돌들로 양식을 만든다면 경제문제는 잘 해결되겠지요. 높은데서 뛰어내려도 아무 탈 없다면 능력이 뛰어나서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자격이 증거되겠지요. 그리고 종교문제는 사단을 경배하게 한다면 세상은 그런 신앙으로 통일 되겠지요. 이렇게 문제들을 지배하고 해결한다면 세상을 구하는 일은 쉬울 것이라는 제안입니다. 마귀는 마태복음에 기록한 순서대로 세 번째 시험에서 마귀의 속내를 드러내었습니다. 그가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탐낸 그 속내를 드러낸 것입니다. 신성의 한 분이신 육신이 되어 오신 말씀 하나님 그분이 루시퍼 자기에게 경배하게 하는 것이 루시퍼의 속내였지요. 그것을 예수께서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셨을 때 주장을 한 것입니다. 가장 약해진 때, 40일을 금식하여 기진하여진 때에 나타나서 시험을 한 것이지요. 아마도 마귀는 자기의 시험에 예수께서 걸려들 줄 알았을 것입니다. 에덴동산의 순결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해주신 그대로의 몸을 가진 아담도 넘어갔는데, 4천여 년 동안 약하여진 그런 몸을 가지고 사람이 되신 예수님은 문제 없이 시험에 빠지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그 약해진 순간에도 결코 예수님을 넘어뜨리지 못했습니다. 말씀으로 주님은 이기셨습니다.

사단은 지금 말씀대로 진리를 바르게 깨닫기를 원하고 깨달은 대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 덤비듯이 덤빌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이겨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시험할 것입니다. 그것은 요한이 기록한 대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태초의 여자에게도 이것을 유혹했지요. 뱀의 제안을 받은 여자가 선악과 나무를 보니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를 얻을 만하게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먹음직, 보암직, 지혜를 얻을 만큼 이 말들이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아닙니까. 예수님도 먹는 것은 육신의 정욕에 속하지요. 천하만국을 보이는 것은 안목의 정욕에 속하고, 높은데서 뛰어내리라는 것은 이생의 자랑에 속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좇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좇아온 것이라.”(요일2:16)고 분명히 계시하셨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언제나 이 세 가지 시험은 우리를 향해 다가옵니다. 그렇지 않은지요? 그럴 때 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말씀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기록되었으되 라는 말씀을 마음 속 깊이 외쳐야 합니다. 그리고 사단을 물리치고 천사의 수종을 받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순간순간을 예수님 편을 택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시험의 광야에서 칠패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선언을 직접 들은 다음인데도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이라는 의심하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사단은 이렇게 의심을 일으키며 질문합니다. 이것은 이 세상이 추구하는 의심의 학문 방법입니다. 한

국에서 아시안 사이언스 캠프를 하는데, 7인의 노벨 수상 학자들이 와서 하는 말이 신문에 보도되었는데, 그들은 “아론 치에하노베르: 가장 해 주고 싶은 조언은 ‘아무것도 믿지 마라’는 것이다.” “수상자들은 이 자리에서 ‘7인7색’의 조언을 내놨다. 창의성을 기르기 위해 “아무것도 믿지 말라. 항상 의심하라”고 권했고,” (8.12.2011 중앙일보) 이런 말입니다. 이 세상은 증명되지 않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외칩니다. 그것이 바로 시험의 광야에서 마귀가 예수님께 제시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돌들로 떡이 되게 하는 실험으로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증명의 세계가 아닙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된 것을 증명하라고 하면 참 괴상한 일이지요. 아버지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아버지 되는 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아버지이니깐요. 요즘은 아버지인데 아버지 노릇을 전혀 하지 않은 사람이 자기 아버지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친자 확인 소송을 하고 아버지라는 증명을 의학적으로 하도록 하는 일들이 있는데, 이것은 아버지 노릇을 하지 않은 아버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노릇을 잘하는 아버지에게 그런 증명을 요구하는 자식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똑 같이 좋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가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라고 하는 일도 괴상한 일이지요. 그런데 마귀는 그것을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경 신앙을 학문으로 증명하라고 하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니까 절대적인 신뢰로 기록하였으되 라는 확신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복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마귀가 시험할 것이지만 예수님이 이기신 것처럼 오직 말씀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하루가 되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